

연변항소, 〈2024년 농업 브랜드 정품 육성 계획〉에 입선

연변목축유한회사, 훈춘길흥목축업유한회사, 연변홍조목축업유한회사, 룡정목락목축업유한회사에 ‘연변항소’ 지리표시증명상표 사용 허가

‘연변항소’가 농업농촌부에서 일전에 발부한 〈2024년 농업 브랜드 정품 육성 계획〉에 입선되었다. 해당 계획에 전국적으로 총 82개의 농산품 브랜드가 입선되었다.

연변항소는 체적이 크고 건강하며 추위에 잘 견디고 거친 사료에 잘 적응하며 번식력이 강하고 내병성이 강한 등 특징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육질이 부드럽고 영양이 풍부하며 풍미가 신선하다. 품질은 일본의 와규, 한국의 한우와 어깨를 나란히 해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연변은 연변항소의 품종 보호와 브랜드 구축을 매우 중시하고 있는바 현재 국가급 보증장 2개, 핵심육종장 1개, 씨수소장 1개가 있으며 핵심 군체 규모가 2,000마리에 달한다. ‘연변소고기’는 국가지리표시제품보호를 획득했고 ‘연변항소’는 ‘지리표시증명상표’ 등록을 마쳤다. 연변항소산업은 ‘분육’, ‘수품연우’, ‘석정’, ‘장백홍’ 등 여러 유명 브랜드를 형성하여 연변항소산

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활력을 주었다.

2024년, 연변에서는 연변목축유한회사, 훈춘길흥목축업유한회사, 연변홍조목축업유한회사, 룡정목락목축업유한회사 등 4개 기업이 ‘연변항소’ 지리표시증명상표를 사용하도록 허가했다. 이로써 기업과 소비자의 쌍방향 브랜드 의식 수립을 추진하고 지역 공공브랜드를 구축하고 ‘중국 제품의 중국 브랜드로의 전환’을 실현하는 데 견고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연변항소 소급(溯源)시스템 건설을 추진하고 빅데이터 플랫폼에 의탁하여 연변항소 정보 입력을 완성함으로써 정보를 소급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 안심할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확보했다.

연변농원활우거래시장을 개조, 승격시켜 연변에 활우거래시장이 없던 공백을 메우고 자원 우세를 경제 우세로 전환시켰다.

연변항소 판매 연결 플랫폼을 구

축하고 우리 성 ‘길림소 중국 제1 브랜드’ 투자유치 기회를 리용하여 룡정시목락목축업유한회사와 길항(천진) 공급사슬관리서비스유한회사간의 2,000만원 판매 계약 체결을 성사시켜 연변항소의 판매 경로를 확대하도록 추진했다.

꾸준히 연변항소 행동정자 사용의 규범화 관리를 강화하고 관리방법을 제정했으며 검사를 전개하여 종원의 질과 공급 능력을 높이고 있으며 연변항소 종원 전염병 예방통제 능력을 강화하고 두 국가급 기업이 길림성 소 ‘2가지 병’ 정화장을 성공적으로 건설하고 국가급 정화장을 신고하도록 지도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발전을 원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정체 지원 강도를 높여 재정에서 2,000만원의 전문자금과 105.3만원의 연변항소 특색산업 발전기금을 지출하여 고기소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는바 연결시를 시범으로 사육

기업과 품무 체인 료식기업의 합작관계 구축을 추진하고 연변항소 육제품을 개발, 보급하여 소고기 소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명록 신청을 위해 연변농업농촌국은 전문가팀을 무어 연변항소의 탁월한 품질과 두터운 문화 바탕에 입각하고 농업 브랜드 정품 육성 계획의 엄격한 조건에 비추어 대량의 문자, 데이터, 사진 등 자료를 수집, 내용이 상세하고 확실하며 데이터가 정확하고 규범적이고 참신한 신고 자료를 형성하였다. 자료는 산업사슬이 완전하고 기초가 튼튼하며 특점이 선명하고 경쟁력이 강하며 발전 잠재력, 영향력이 비교적 크고 산업인쇄력이 뚜렷한 등 연변항소의 여러 가지 우세를 중점적으로 체현했으며 연변항소 브랜드의 독특성과 품질의 일치성을 두드러지게 하고 특정한 자연생태환경과 력사 인문 요소를 잘 체현시켰다.

/ 본지종합

‘마트 + 식당’·‘커피 + 책방’... ‘혼합풍’, 실제 상가의 새로운 추세로

‘마트 + 식당’, ‘커피 + 서점’, ‘사진관 + 네일아트’... 업태의 ‘혼합풍’이 실제 상가의 새로운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업태의 혼합 혹은 다업태 혼합 경영은 두가지 혹은 두가지 이상의 업태가 한 공간내에 집중되어 경영하는 모식을 말하는바 다양화 제품과 서비스로 소비자의 다원화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실제 상가의 새로운 경영 모식이다.

이러면 어떤 요즘은 ‘마트에 가서 식사하기’가 소비자들의 새로운 선택으로 떠오르고 있다. 배달 도시락, 밀키트에 질리고 싫증을 느낀 출근족들은 금방 조리해낸 음식을 더 마음 들어하고 밥이 부치는 로인들에게는 위생적, 즉석의 다양한 부패가 적격이며 학생들은 방학이면 평가로 다양하게 포식할 수 있어 반긴다... 북경시 해정구 중관촌의 한 마트에 개설한 식당에서는 60여종 요리가 부패식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주식류 1인분이 13원, 볶음채류 1인분이 19.9원이다.

다업태 혼합 경영의 배경

정부사업보고는 신행 소비를 육성, 발전시키고 소비환경을 최적화하며 상품 및 서비스 질의 부단한 향상을 추동하여 인민대중의 생활 수요 개선을 더욱 잘 만족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6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 등 5개 부문은 ‘소비의 새로운 장면을 구축하고 소비의 새로운 성장점을 육성할 데 관한 조치’를 발부하여 쇼핑 및 소비의 새로운 장면을 육성하고 쇼핑 및



북경시 해정구 중관촌의 한 마트에 개설한 식당

소비의 다원적 융합 발전을 추동하는 것을 지지했다. 8월에는 국무원에서 〈서비스 소비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할 데 관한 의견〉을 발부하여 서비스 품질을 힘써 향상시키고 소비 장면을 풍부히 하며 소비 환경을 최적화하고 혁신으로 서비스 소비의 내생동력에너지를 활성화시켜 서비스 소비의 새로운 성장점을 육성할

것을 제기했다.

서비스 소비 잠재력 부단히 방출

소비 촉진 정책 조치가 점차적으로 락착됨에 따라 소비 장면과 업태가 부단히 혁신되고 시장 활력이 점차적으로 증강되고 있으며 서비스 소비 수요가 효과적으로 방출되고 있다.

국가통계국의 관련 수치에 따르면 3분기까지의 서비스 소매액은 지난 동기보다 6.7% 성장했다. 전국 주민당 서비스 소비지출액은 9,694원으로 지난 동기보다 7.6% 성장하고 주민 서비스 소비지출이 주민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로 지난 동기보다 0.9% 성장했다.

각측의 관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경제체제및관리연구소 연구실 주임 왕성위는 “업태의 혼합은 소비 장면의 혁신이자 발전 모식의 혁신이다. 그 본질은 기능의 집중으로서 ‘1+1 > 2’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표했다.

중국과학원 과학기술전략자문연구원 원장 반교봉은 “날로 다원화되는 소비 수요에 견주어 편리, 품질, 문화 등 공급측의 다각도로부터 출발해 혁신 투입 강도를 높이고 특색 상품을 구축하며 서비스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을 통하여 백성의 소비 체험을 풍부히 하고 소비 성장 공간을 넓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통계국 국민경제종합통계사 사장 류애화는 “내수를 확대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일련의 정책하에 상품과 서비스 공급의 질과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소비정책이 부단히 보완, 최적화되고 있으며 신행 소비와 서비스 소비가 쾌속 성장하고 있다. 이런 점들은 소비 잠재력의 쾌속 방출에 유리하며 이로부터 소비 회복의 기초가 더한층 공고해 질 것이다.”라고 표했다.

/ 신화넷

지능 · 쾌속 · 경제적... 중국 소포 지구촌 곳곳으로

해관총서가 초보적으로 추산한 수치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우리 나라 다국전자상거래 수출입액은 1.88만억원으로 지난 동기보다 11.5% 성장했다.

점점 더 많은 소비자들이 집에 앉아서도 세계의 좋은 물건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송 비용도 적게 들이는 다국간 소비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화물흐름이 지능보다 보다 원활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한 소비자가 다국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하여 중국의 의외, 동판, 향주 등 부동한 도시로부터 주문한 5개의 소포들이 항주에 있는 모 집적 운송 창고에 집결되어 한꾸레미로 묶여져 동시 발송 준비를 마쳤다.

모 물류 브랜드 국제택배사업부 해결방안 책임자 설외와는 “여기서 부동한 점포의 총 5개 소포를 한번에 고객에게 보내는데 이것이 바로 지능통합꾸레미(智能合单) 기술이다.”라고 소개했다.

수만평방미터 되는 항주의 이 집



항주에 있는 모 집적 운송 창고에서 영업원이 ‘지능통합꾸레미’(智能合单) 작업을 하고 있다.

적 운송 창고에는 각양각색의 화물이 800여개의 격자에 분산되어있는데 어느 시간, 어느 격자에 가서 물건을 찾아가 하는 것은 설 새 없이 반짝거리는 파란색 포지셔닝빔이 방향을 인도하고 있다. 디지털화 시스템은 소포의

흐름, 주문 시간, 항공편 등 요소에 근거하여 같은 고객의 다른 산지 상품을 하나의 큰 꾸레미로 묶어서 통일적으로 발송할 수 있다.

“물류비를 증가하지 않는 기초에서 원래 30~50일에 송달되던 소포

를 10일 ~20일에 송달하고 중점적인 14개 나라와 지역에서는 관련 업무사슬의 효율 향상을 통해 지어는 5일에 송달하기도 한다.”고 설외와는 소개했다.

매일 수십만개의 소포가 이곳 집적 창고에서 세계 200여개 국가와 지역으로 발송되는데 일부 국가는 빠르면 5~7일이면 소포를 받을 수 있으며 평균 운송 비용은 5달러 정도 밖에 들지 않아 특히 전운선 물류 비용이 평균 15~30% 정도 절약된다.

교통운수부 운수봉사사 부사장 맹효유는 “최근년간 네트워크 화물 운송은 인터넷 플랫폼에 의탁하여 운수자원을 통합하고 차량과 화물의 정확한 매치를 실현하여 운수의 조직 효율을 대폭 제고시켰다. 전통적인 운송 방식에 비해 네트워크 화물 운송의 화물 대기시간은 평균 2~3일에서 8~10시간으로 단축되었고 거래 원가는 약 6~8% 하락하였다.”고 표했다.

/ 중방 TV 방송넷

백산시 인삼산업 산학협력의 길 열어

길림대학 인삼의약산업사회실천기지 백산시서 현판

최근년간 백산시는 인삼의약산업의 발전을 긴밀히 둘러싸고 과학기술혁신을 선도로, 산업의 전환발전과 업그레이드를 주선으로 인삼 재배, 가공, 연구개발, 판매 등 각 단계의 협동 발전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왔다. 올 들어 백산시는 인삼 완전산업사슬 발전 ‘10대 프로젝트’를 심도있게 실시했다. 인삼산업고품질발전대회, 인삼 의약과학연구 성과 전환 투자런결회, 과학기술 성과와 기업 공급 및 수요 런결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과학연구 성과 97개를 발표하였으며 과학기술협력 대상 24개를 달성하고 성과 전환 프로젝트 16개를 런합 신고하였다.

백산시는 인삼산업을 고품질로 발전시키는 것을 당지 실정에 맞

게 신질생산력을 발전시키는 으뜸가는 공정, 우선적 임무로 간주했다. 이번 백산시와 길림대학의 합작 계약 및 간판 수여는 우세 상호 보완, 호혜상생의 참신한 장을 열었다. 쌍방은 산학연 협력을 심화하고 인삼의약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부단히 추진하여 첨단 인삼의약산업집군을 구축하는 데 새로운 동력에너지를 부여하게 된다. 백산시는 최상의 서비스, 최강의 보장으로 대학 연구기구와의 협력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대학교 과학연구항목에 대한 지원 강도를 높이며 대학교와 기업의 런결 협력을 적극 추진하여 대학교 사생들이 백산시에서 혁신창업하는 데 전방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길림일보

식품경영허가증, 전 과정 온라인 서비스로 편리 도모

데이터 ‘달리기’, 대중의 ‘찾아다니기’ 대체

행정 효능을 제고하고 경영환경을 최적화하며 편리, 쾌속, 공평, 보편혜택성, 량질, 능률적인 정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최근 백산시 진래현시장감독관리국 창구는 식품경영허가증 전 과정 온라인 접수 처리 모식을 전면적으로 실행하여 지속적으로 정부 서비스의 표준화, 규범화, 편리화를 추진하고 있다.

신청인은 창구에 찾아가 신청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길림성시장감독관리청 식품경영허가증 접수 처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시스템을 통해 전자판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원래의 ‘대면’에서 온라인 접속으로 전환하여 진정으로 데이터의 ‘달리기’로 대중의 ‘찾아다니기’를 대체하였다.

이 밖에 진래현시장감독관리국 창구는 전자자문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개통하여 신청인에게 세밀한 식품경영허가증 전 과정 전자화 처리 절차 설명과 관련 문제 해답을 제공하여 매 고리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확보함으로써 대중들이 걸

음을 적게 걷고 적게 서류를 작성하며 번거로움이 적어 더욱 안심하고 전만 처리 과정을 완성할 수 있도록 했다.

대중들이 ‘일을 빨리 처리하고 차질없이 성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창구 사업일군은 전반 과정의 전자화 처리 지침을 알심들여 제작하고 QR 코드를 형성하였다. 구두로 알리기, 서면으로 알리기에서 ‘스캔하면 바로 찾아보기’를 실현한 것이다. 이 조치는 정보의 투명도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전반 처리 과정을 더욱 직관적으로 료해하고 진정으로 ‘코드’ 하나로 편리하고도 빠르게 완성할 수 있도록 했다.

진래현시장감독관리국은 계속해서 부단히 데이터 능력 부여를 강화하고 봉사 조치를 혁신하며 경영주체와 대중의 만족도, 획득감을 향상시켜 전 현의 경영환경이 지속적으로 안정되고 호전되도록 추진하는 데 강력한 동력에너지를 주입하게 된다.

/ 길림일보

우리 나라 연간 재활용 고철량 2.6 억톤

‘도시광산’ 개발로 순환경제의 새로운 기회 맞이

천진시에 위치한 자야순환경제 산업단지의 한 재활용공장에서 단 15분 만에 차량 한대가 구리, 알루미늄, 플라스틱 등 재활용 가능한 조각으로 분해된다. 전기차 배터리 역시 테스트, 선별, 재조립 과정을 거쳐 그중 사용 가능한 부품은 다양한 분야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나머지 부품은 안전하게 분해돼 새 배터리의 원자재로 탈바꿈한다.

몇년전만 해도 ‘순환경제’는 이 산업단지에서 꽤나 낯선 개념이었다. 당시에는 폐기된 가전제품을 해체하는 작업장이 고차 몇개에 불과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산업단지는 우리 나라에서 순환경제를 핵심산업으로 하는 첫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로 자리잡았다.

거린메이(천진) 도시광산순환 산업발회사의 2,000평방미터 넘는 창고에는 다양한 유형의 배터리가 가득 쌓여있다. 소개에 의하면 지난해 이 회사에서는 니켈자원을 2만톤 이상 재활용 및 재사용했는데 이는 우리 나라 원니켈 채굴 수량의 20% 이상을 차지, 텅스텐 회수 총량은 4,680톤에 달해 우리 나라 원 텅스텐 채굴량의 6%를 차지했다. 회수 사용하는 코발트 자원은 8,000톤 이상에 달하여 우리 나라 원생 코발트 채굴 수량의 350% 이상을 차지했다.

중국순환경제협회에 따르면

2023년 우리 나라에서 재활용된 고철량은 약 2.6억톤으로 조강(粗钢) 총생산량의 약 25%를 차지, 재생 비철금속 생산량은 약 1,760만톤으로 비철금속 총생산량의 약 25%를 차지했으며 재생 파프 생산량은 근 6,000만톤으로 파프 총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했다.

이처럼 천진은 ‘도시광산’을 둘러싼 순환경제 산업사슬을 형성하여 폐전자제품 회수 처리, 산업단지 순환화 개조, 수자원 재활용 등 분야를 이끌어왔다.

도시광산이란 산업 폐기물로부터 가치 있는 금속자원, 플라스틱, 고무 등 자원을 추출해 산업 원료로 재공급하는 산업을 말한다. 바로 10월에 자원 순환리용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중국자원순환그룹이 새로 구성돼 정식으로 천진에 자리잡았다. 이 중앙기업은 전국적이고 기능적인 자원 회수 재활용 플랫폼을 구축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중국의 자원 순환리용 분야의 선두기업으로 나서게 된다.

폐기물 재활용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하고 고품질 발전을 위한 녹색저탄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원이 발표한 관련 목표와 조치에 관한 의견에 따르면 2025년까지 고철, 폐구리, 폐알루미늄 등 주요 재생자원의 년간 활용량은 4.5억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신화넷